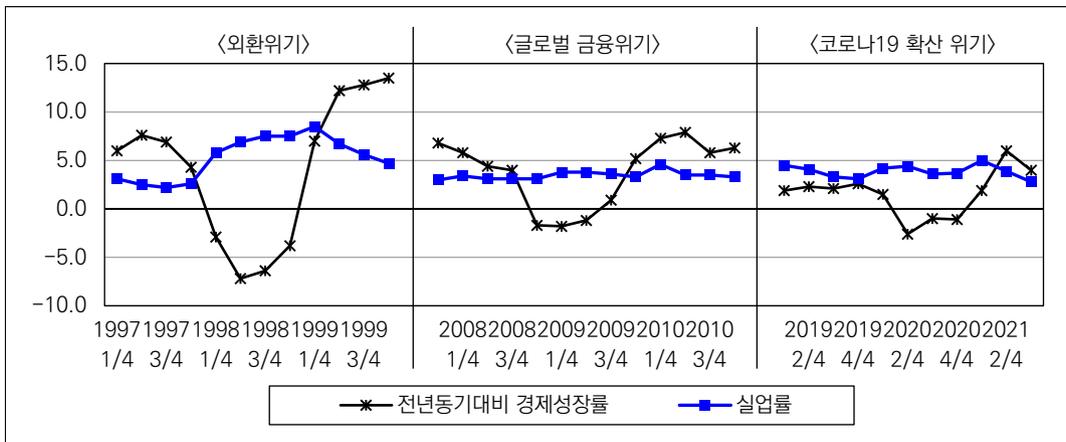


경제위기 기간 노동시장 지표 추이 비교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은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경제성장률 하락에 비해 실업률 증가폭은 크지 않았음.
 - 외환위기 시기(1998년 1~4분기)에 경제성장률은 평균 5.1%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6.9%까지 상승하였음. 이 시기 실업률 증가폭 평균치는 4.3%p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업률 상승폭도 매우 컸음.
 -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2000년대 들어 처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경제성장률은 2008년 4분기~2009년 3분기 평균 -1.0%로 직전 1년 평균 성장률 5.3%에 비해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실업률 증가폭의 해당 기간 평균치는 0.4%p로 작았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었음.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으나 실업률 증가폭은 0.2%p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

[그림 1] 경제위기별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단위 : %)



주: 외환위기 기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표 1〉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시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확산 위기		
	1997	1998	1999	2008	2009	2010	2019	2020	2021
실업률	2.6	7.0	6.3	3.2	3.6	3.7	3.8	4.0	3.7
경제활동참가율	62.5	60.6	60.6	61.7	61.0	61.1	63.3	62.5	62.8
취업자 수 증가율	1.7	-6.0	1.8	0.9	-0.4	1.5	1.1	-0.8	1.2

주: 1)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기준.

2) 외환위기 기간 실업자는 구직기간 1주 기준, 2000년 이후는 구직기간 4주 기준.

3) 2021년은 1~11월 평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표 1〉을 보면, 외환위기 기간 중 큰 폭의 고용 감소와 함께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음.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 위기 기간에는 실업률 변동은 크지 않은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음.
 -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위기는 경기 순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기 위축이 아닌 특수한 경제 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기간임. 위기 기간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고용 상황은 경기 변동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응에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함.
-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내총생산을 노동생산성, 총노동시간,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로 분해해 세 번의 경제위기 전개과정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음.

$$- \frac{Y}{P} = \frac{Y}{H} \cdot \frac{H}{E} \cdot \frac{E}{LF} \cdot \frac{LF}{P} \text{와 같으며, 이는 } y_P \cong y_H + h_E + e_{LF} + lf_P \text{로 표현이 가능.}$$

단, Y : 실질 국내총생산, P : 생산가능인구,

H : 총노동시간(월평균 근로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30.4/7을 이용),

E : 취업자 수, LF : 경제활동인구,

y_P :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 y_H :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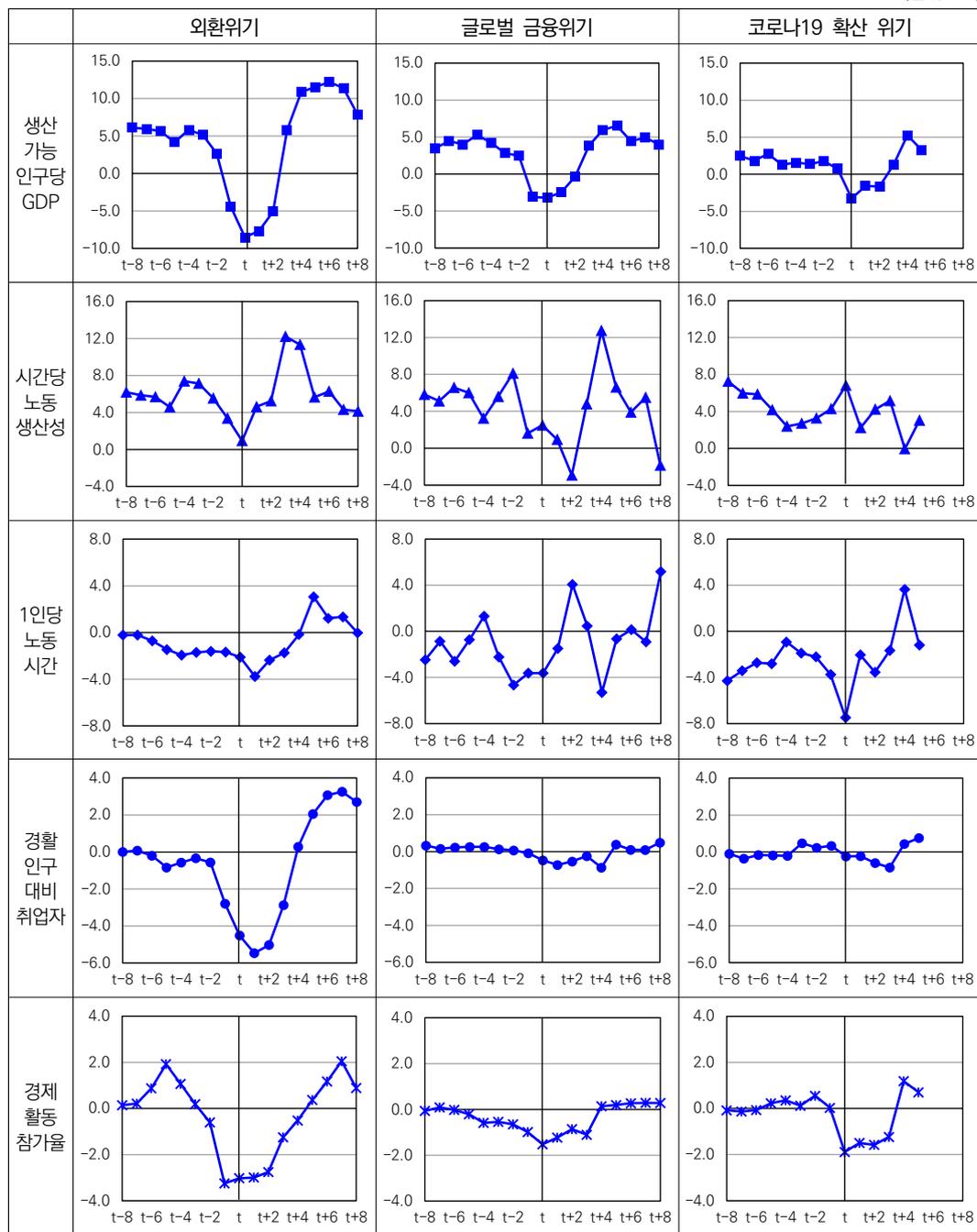
h_E : 1인당 노동시간 증가율, e_{LF} :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증가율,

lf_P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율.

- 즉,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노동시간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율의 합임.
- 그림 2는 세 번의 경제위기 기간에 대해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1998년 2분기, 2009년 1분기, 2020년 2분기를 t 시점으로 하여 전후 2년의 노동시장 지표 추이를 나타냄.

[그림 2] 위기기간별 노동시장 지표 추이

(단위 : %)



주 : t는 분기 단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외환위기 기간 중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증가율(=1-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 근로시간 감소폭은 크지 않았음.
 - 일반적으로 경기 위축 시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근로시간이 먼저 조정되고 고용량 감소가 나타나게 되나, 외환위기 기간에는 근로시간 조정보다 고용량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음.
- 금융위기 기간과 코로나19 확산 위기 기간에는 외환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활인구 대비 취업자 증가율 하락폭은 크지 않았음. 각 위기 시작 직후 근로시간 감소가 즉각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임(그림 2 세 번째 행 참고).
 - 두 경제위기 기간에 대량 실업이 나타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근로시간 조정임. 이는 고용 유지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 정책 대응의 영향이 큼. 실제 일시휴직자는 2008년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만 6천 명, 2009년 1분기에 7만 4천 명 증가했고, 2020년에는 전년보다 43만 명 증가하였음.
 -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였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때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이 더 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인구증가율이 커 경활 참가율이 감소했으나 코로나 19 확산 위기에는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이 많았기 때문임.
 - 요약하면, 코로나19 확산 위기에는 근로시간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외환위기와 같은 대량 실업은 발생하지 않았음. 그러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 비경제활동 상태로의 이동도 컸다는 점에서 실제 고용 충격은 실업의 변화로 나타난 것보다 더 심각했음.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